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창세기 14:17-20, 히브리서 7:11-25

정윤돈 목사님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단의 장막 같은 저희를 솔로몬의 휘장 같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우리는 작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계복음회를 이룰 줄 믿습시다. 300명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니스되어 지역, 민족, 가문, 후대, 세계를 살리는 천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두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충성된 마음과 성실, 체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 안에 품어 지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능하여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사, 말세지말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레마를 발견케 하시고, 소중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들어가면서 먼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1)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는 AD 68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사도바울이 그 즈음에 순교했다고 본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상당히 늦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기독교가 많이 확산되면서 이방인도 많이 믿게 되었고, 유대인도 많이 개종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파고들었으니까, 당연히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던 중 기독교가 커져 가니까 로마의 핍박 시대가 온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오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 이른바 ‘메시아니즘 유대인(Messianic Jew)’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직 예수만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순순하게 믿었는데, 그 예수가 참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가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야 하지 않나, 안식일도 지켜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종교혼합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만으로 부족한 것이다. 예수도 믿지만 마리아도 믿어야 한다는 게 친주교다.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나 체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다. 거기에 이만회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신천지다.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합해서 믿는 것이 문제다. 삶도 신앙도 섞으면서 타협하는 것이다. 요셉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 신앙도 삶도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과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 신앙생활 따로, 세상 따로인 것이다. 성경 따로, 사업 따로인 것이다. 이 부분을 두고 저자는 종교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 히6:4-6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예수 믿고도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 중에서 오직 예수를 하다가 타락했다.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타락이다. 마약이 타락이 아니다. 마약 안 한다고 원죄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는데, 다시 할례, 절기, 제사 제도 같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받겠는가? 못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 마리아도 필요하다’ 생각하면 지옥에 간다. 그것이 타락이다. ‘오직 예수도 맞지만 날을 지켜야 한다, 율법절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를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이야기 다 해도 타락한 것이다. 구원받기 어렵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란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다. 오직 예수도 했다. 그래서 할례도 율법도 다 버렸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야,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제사장 제도는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만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다. 유대인의 잘못된 지적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반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완전히 폐하신 증거가 구약성경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찾아내어서 정리하여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봤더니, 구약 전체를 봐도 맞는 것이다.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인데 유다 지파다. 시110:4을 보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상징하지만 다윗도 상징한다. 다윗은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멜기세덱의 서열, 계통, 반차를 따라서 되었다고 했다. 아론의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지 않나? 유다 계통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냐고 했다. 그 근거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렵게 진도를 했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니까 꾸짖어가면서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를 해결하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믿음,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다.

(2)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에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전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늦게 기록되었다. AD 65~70년 사이다. 처음에는 이름을 쓰고 교회에 주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게 된다.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알아채서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유대인들을 뒤엎는 새로운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를 대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름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앞뒤 정황을 보면 바울이 쓴 것이 정확하다. 99%.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전도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잘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쫓겨났는데,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 주소, 이런 것을 다 적어놓았기 때문에 걸려서 쫓겨난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음소식 암송하는 선교사님의 성함이 유지길 선교사님인데,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2년 만에 알았다. 지금도 본명을 모른다. 중국 선교사님은 이름이 수시로 바뀐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히브리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1)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히1:2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1:3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 하나만 봐도 히브리서를 사도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골로새서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온다.

(2)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히1:4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했고, 히1:14에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는 존재’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한다.

(3)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히3:4에서 저자는 이야기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없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모세는 누구인가? 히3:5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은 만물을 집처럼 지으신 창조주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다. 아들이 높나, 종이 높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다. 모세는 종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흔들리던 유대인들이 뿌리가 내려졌을 것이다. 뿌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내려진다(딤후3:14).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짧게 요약해서 정리한 작품이다. 실력이 없으면 정리를 할 수 없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아는가. 우리가 가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오직 예수 하는데, 그래서 이단을 못 이긴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더 깊이 뿌리내려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4)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히4:8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안식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전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진정한 참안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히4:10은 말씀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가? 갈등 있는가? 참된 안식이 없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서 보는 안식은 무엇인가? “주님도 쉬셨으니 나도 쉬자!” 그러면서 공부를 쉬고, 구역장 권찰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일을 두고 죽도록 충성해도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일을 빼쳐야 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안식이 있지 않나. 혹시 여러분, 예배에 빠졌는데도 안식하는지? 우리는 주일 앞에 예배드릴 때 안식하게 되는 것이다. 갈등하지 말고 참여하라. 혼란에도 예배에도 갈등하지 말고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축복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예배에 성공하라.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예배에 집중하면 다 따라온다. 램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어려운 메시지를 눈 부릅뜨고 켜 들어서 정리하고 있으면 공부는 잘 되게 되어 있다. 눈 감고 있지 말고 메시지를 가지고 적어라. 영적으로도 적어야 산다. 여러분, 머리 좋은가? 천재인가? 목사님들도 다 생을 걸고 적는다. 그렇게 적어서 핵심을 찾아내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부도 연구도 그렇게 하면 된다. 바울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 예배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5)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다섯 나라 연합군의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다. 결국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연합군을 습격해서 승리하고, 롯을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때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다.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밝혔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10개 중 하나를 줬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인데, 아홉 개를 내가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의 의미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된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말이다.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라오멜에

게 정복당하던 다음에 공격받을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중직자 한 명이 전쟁에 나가서 꺾어 버렸으니 감사하지 않나? 왕이 나가서 축하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의 소속입니다. 당신이 지배하는 땅에서 이방인인데도 평화롭게, 또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예를 드셨다. 이 벨기세텍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분이시다.

(6)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혈통을 따라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벨, 노아부터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쓴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니까 눈이 확 열리는 것이다.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십계명에도 구원의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이 있다. 구원받았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없어진 율법이 있다. 할례, 제사제도, 없어졌다. 바뀐 것이 있다.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오늘날의 예배당으로 바뀌었다. 승화된 것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으로 심화되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율법이 틀리다 하는 방종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율법은 더 심화되고 승화되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더 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증보를 주셨다. 증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거의 증보자는 대제사장이었다. 이것이 옛 언약이다. 그런데 새 언약의 증보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제사장이 많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본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다.

2.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히4:14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2)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련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히4:15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련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3) 예수 그리스도는 또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으며,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4:16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실수, 부족함,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란다. 구약의 율법은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용서하신다.

(4)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히5:6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6:20에도 똑같이 나온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성소를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진정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지성소인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죽어 버린다. 그래서 몸에 달고 있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밧줄로 잡아당겨 끌려왔다.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어디로인가? 천국으로 가셨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히7:1-16에는 쪽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한다. 히7:2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7:3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시니라.”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서 해석해 주고 있다.

(5)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시다. 히5:9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6)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다. 히7:24에,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7) 새 언약의 증보자이시다. 아까 설명했다. 히8:6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라고 했다. 히8:8에, ‘새 언약을 맺었다고 했다. 이 근거가 무엇인가? 렘33:31-34에, ‘새 언약을 주리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 새 언약이 이만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회가 새 언약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 그런 소리 따르기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서 그 사람들을 다시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 사랑과 천명을 감당하도록, 이단을 이길 만큼 준비하고 공부하시기 바란다. 팀 짜서 같이 한 번 가 보자. 하나님의교회도, 신천지도, 찾아가 보자. 반대만 하지 말고, 무슬림 정도 특공대 만들어서 가 보자.

3.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후반부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섬겨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바울이 쓴 증거가, 바울이 쓴 것처럼 앞에서는 교리, 뒤에서는 삶 이야기를 하는 구조가 똑같다는 점도 있다.

(1) 히10:22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여러분, 마약중독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가? 알콜, 도박중독자, 사이코패스가 치유될 수 있는가? 대체시장 되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온전케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악습, 부족한 점, 연약함이 있다. 결국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항상 우울하게 다니는 모습이, 어느 순간 밝고 화창하도록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박산회 장로님 여권사진을 보고 나는 정말 놀랐다.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화창하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온갖 사기를 치고 악행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은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결국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미 깨끗케 되었음을 믿으라. 술, 담배, 야동. (웃음) 이 말을 했더니, 우리 램프가, “목사님, 재 야동 못 끊어요.” (웃음) 이미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히10:24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로 결론을 냈으면 이제 겨우 자기 믿음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주변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며 서로 격려하고.

(3) 히10:25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니까, 오직 권하게 된다. ‘우리 혼란 가자. 구역에 가자, 지교회 하자’ 하고 권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권하라. 친척을 권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하면 된다. 이런 사명, 소명, 천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4) 히11:1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있는 300명은 허상이다. 우리의 실상은 앞으로 모이게 될 3천 제자요, 일어나게 될 1천만 제자다. 여러분이 다 갑부가 되고, 여러분 중에, 후대 중에 재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공부 좀 못하는 것은 허상이다. 응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5) 어려움 오고 문제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히12:2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부족하다, 힘들다, 못 하겠다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사람을 바라보다 마라. 사람 마음의 문도 주님이 여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하라. 하나님이 문을 여셔 야지, 우리 힘으로는 못 연다. 주님을 바라보고 권하면 된다. 내 의지가 아니다.

(6) 그러면서 말한다. 히12:14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싸우고 저기에서 싸우고 여전히 갈등하고 말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사람, 가족들이 다 원수들인데, 다 풀으라.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하라. 먼저 다가가라.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거룩한 길을 걸으라. 이 길을 걸지 않으면, 성경에는 과장법이 좀 많은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위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타락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란다.

(7) 히13:1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13:2에, “순뎀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13:4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히13:5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비를 족한 줄로 알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8) 히13:15에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성가대는 제사장들이다.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 예배다. 예수 믿으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9) 히13:16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응답까지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10) 히13:17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시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들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고 힘을 줘라.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만들어 줘라.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반드시 도전하고 개혁해야 할 절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답을 줄 수 있겠는지를 고민했다. 우리도 답을 줘야 한다. 이단에게 답을 줘야 한다. 후대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 후대를,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온다. 여기에 답을 줘야 한다. 불평등한 경제 문제에 답을 주는 제벌, 경제인이 나와야 한다. 국민 복지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자살과 중독에 대해서, 교회 감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소중한 천명의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미션과 도전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천명으로 붙잡아서, 자신이 개혁되고, 한국과 세계 교회에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과 전도의 일과 후대 섬기는 일에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